

문 7: 하나님의 예정[미리 작정하신것]이 무엇인가?
답 7: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목적) 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1:4, 11, 2:10; 사도행전 4:27-28, 2:23; 로마서 9:22-23, 11:33; 시편 33:11; 이사야 46:10

질문 1: 하나님은 그의 일을 언제 작정하시는가?

질문 2: 하나님은 그의 일을 무엇을 위하여 작정하시는가?

질문 3: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작정하시는가?

질문 4: 하나님의 작정함은 그의 무엇에 따라 하시는가?

질문 5: 하나님의 작정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질문 6: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위해 누구와 함께 의논하시는가?

질문 7: 하나님은 그의 작정함을 어떻게 선포하였는가?

설명:

하나님은 모든 일에 미리 작정하심이 없이 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가면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모든 일에 있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작정하심 바를 다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작정하심을 이행하신다. 사람은 완벽한 결정을 내릴수도 없고 또 그 결정을 다 이룰수도 없다. 사람에게는 주권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시며 완벽하게 그의 계획과 결정을 진행하시고 적중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조금도 낭비가 없다.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55:11 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그가 말씀한대로, 뜻한대로, 다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미리하신다. 여기서 미리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견해로는 창세전부터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영원전에 하신 것이다. 다시말하면 천지창조 역시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3) 사람이 집을 지을때에도 설계도를 미리 완성한 다음 시공에 임한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천지창조의 과정과 미래를 미리 설계하신것이다.

하나님의 설계가운데 핵심적인 결정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 예정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4-5)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6)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8)
-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7)
-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11)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되어가는 일에 적용된다. 어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심이 없이 되어갈 수 없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1)

아무것도 우연히 또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모든 되어가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는 정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셨다는 답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그가 하시는일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 다만 그의 작정을 사람들로 알게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18)

하나님의 작정에는 반드시 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하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순간 순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그의 영원한 경륜, 곧 목적에 따라 내리셨다. 사람도 어떤 일을 할때에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을 따라 결정을 하셨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이 이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셨고 항상 준비하신 바를 이루신다. 사람의 계획은 그때 그때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한다. 그 이유는 그의 모든 계획의 결정은 그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의 유효기간은 없다. 즉 작정하심은 언제든지, 항상 이뤄지고 있는것이다.

사람이 격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 기근, 천재지변, 사고, 병마, 죽음 등등 모두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영원한 경륜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 28-30 절에서 말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 예정론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이다. 예정론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정론을 논의할 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본다.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하자.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셨다고 해서 죄가 하나님께로 부터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잘 이해가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도 제공하신 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시편 5:4)
-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13-14)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5)

죄는 사실상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죄의 저자는 사단이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죄가 없이 좋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들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과 천사들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것은 의도적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으셨다. 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예정론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론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죄와는 무관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면, 구태여 전도를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다. 모두가 예정된대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생과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오셔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예정론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과 예정론의 조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정론을 인정하시면서 지상명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다. 혹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정론과 지상명령의 조화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함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성경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 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3-1. **작정의 바른 개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造成者)이지 않으시며, 피조물들의 의지가 침해되지도 않으며, 또한 제 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함이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3-2. 예지(豫知)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가상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아시지만, 그가 무엇을 미래의 일로 혹은 그러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신 것은 아니다.

3-3. 이중적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3-4. 예정의 개별적, 불변적 성격

이렇게 예정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졌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다.

3-5. 선택의 전적 은혜성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기쁜 뜻에 따라 오직 그의 값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혹은 그것들 중에서 끝까지 견딤이나, 혹은 피조물 안의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미리 아심이 없이 하셨으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3-6. 구원의 수단들도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때, 그는 그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선택함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救贖)되고; 정한 때에 활동하시는 그의 영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養子)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선택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고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3-7. 버려두심의 목적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공혹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그 자신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지나쳐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런 공의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3-8. 예정 교리의 유익들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는,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며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사모하게 하며 겸손케 하고 근면케 하고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다음과 같이 시편 23 편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